

만화 1번지 부천 복사골 '만화의 꽃 활짝'



출판만화 전문 축제인 '제7회 부천국제만화축제(NICOF)'가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의 흥겨운 만화세상을 열었다. 흥건표 부천시장의 개막선모와 함께 시작된 제7회 부천국제만화축제는 국내 유일한 출판만화 전문 축제로 첫 날부터 어린 아이에서 할머니까지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글 권경희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

깊어 가는 가을, 부천 복사골은 만화의 세계에 푹 빠진 가족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은 부천국제만화축제가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경기도 부천 복사골문화센터 전관과 송내역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만화와 가장 많이 팔린 만화, 가장 오래 연재된 만화를 한 자리에서 만나는 재미를 만끽하기 위해 행사 첫날부터 어린 아이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만원을 이뤄 부천 복사골이 북볏다. 행사 첫날 개막식에 참석한 흥건표 부천시장은 "적박한 만화산업에 한줄기 희망을 일궈낸 부천국제만화축제는 세계 만화시장에 우리 문화를 심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린 부천만화축제는 만화 북페어전을 주 컨셉으로 하며 주제전과 기획전, 시민 참여 행사 등으로 나뉘어 개최됐다. 이번 축제는 국제코믹북페어, 출판만화전본시, 해외만화특별전 등의 기획전시와 학술행사 등이 진행됐고, 특히 국내 출판만화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외 각국 만화의 다양한 소개를 통해 한국만화의 미래를 모색하는 열린 축제라는 평가를 이끌어 냈다.

부천국제만화축제는 출판만화전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70여 국내 만화 출판사와 미국 중국 프랑스 등 19개국 63개 해외 출판사들이 출품한 작품들을 전시하는 가운데 올해는 '동인지 코너' '아시아 만화 탐험전' '한국만화 기네스전' 등의 다양한 기획 전시회를 풍성하게 준비했다.

기네스전에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만화로 1946년 발간된 김규택의 '만화풍자해학가열전'을 비롯해 김용환의 '토끼와 원숭이' (1947년작), 정현웅의 '노지심' (1948년작) 등 초창기 만화들을 모두 만날 수 있었다. 1950년 동아일보를 시작으로 조선일보를 거쳐 2000년 문화일보로 이어지며 50년간 총 1만4139회가 연재된 김성환 화백의 신문만화 '고바우' 주요 작품, 19년간 월간지에 연재된 길창덕의 '순악질 여사', 17년 주간지 연재 기록을 가진 박수동의 '고인돌', 1020만부가 판매된 홍은영의 '그리스 로마신화', 140편으로 이뤄진 박봉성의 '신이러 불리는 사나이' 등 한국 만화의 각종 기록이 모두 등장했다.

문화센터 마당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만화를 그려보는 만화 체험 행사가 매일 열렸다. 만화 속 주인공을 실제로 구현해보는 코




스톱플레이 대전은 송내역 앞 광장에서 16일 예선, 17일 본선이 열렸다. '하얀마음 백구' (15일), '로보트태권V' (16일) 등 두 편의 애니메이션 상영회는 출판만화와 애니메이션이 사이좋은 친구임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밖에 만화 캐릭터와 원화 판매전, 인간형 로봇 전시회, 만화 속에 등장하는 부천 풍경전 등 만화 애호가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선보였다.

올해부터 출판만화 산업을 장려하고 작가의 창작 의지를 북돋기 위해 마련한 'BICOF 만화상'에는 허영만의 만화 '식객'이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부천만화정보센터는 허영만의 '식객'을 포함해 7개의 만화작품을 수상작으로 10월 13일 선정·발표했다.

부천만화정보센터는 허영만의 '식객'은 작가 허영만이 지닌 작가적 무게와 작품의 완성도 그리고 기획의 성공 등이 고루 좋은 점수를 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식객' 외에도 강도영의 순정만화(일반만화상), 김수용의 힙합(청소년만화상), 신영식의 짱뚱이의 아빠(청소년만화상), 사이로의 사이로여행기(카툰상), 탁영호의 단편만화를 위한 탁선생의 강의노트(특별상) 등이 수상했다.

'BICOF만화상'은 한국 출판만화산업의 진흥과 작가의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 부천만화정보센터가 올해 처음 마련한 것으로, 지난 1년간 국내 출판만화도서 중 가장 큰 성과를 남긴 작품 중

에서 ▲어린이만화상 ▲청소년만화상 ▲일반만화상 ▲카툰상 ▲기획부문 특별상 등 총 6개 부문에 걸쳐 선정한다. 시상식은 부천국제만화축제 개막일인 10월 14일 부천시 복사골문화센터에서 거행했다. 

인터뷰/ 김승동 부천만화정보센터 상임이사



“세계 출판만화 저작권 시장 중심으로 자리매김”

▶매년 부천국제만화축제를 개최하려면 힘들텐데.

-일반인들에게 만화를 문화이자 산업으로 널리 인식시키는데 부천국제만화축제가 큰 기여를 해온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으로 큰 힘을 얻습니다. 앞으로도 만화가와 연관 산업체, 일반인들을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 중 추천하고 싶은 행사는.

-아시아 만화전은 특별히 눈여겨 볼만한 행사로 추천하고 싶다. 흔히 만화하면 일본만화를 떠올리는데 아시아 만화는 매우 다양합니다. 대만, 베트남, 미얀마, 태국 만화도 매우 독특하고 보는 재미가 남다를 것입니다. 평소 쉽게 보기 힘든 작품들을 원화 그대로 볼 수 있는 재미와 작가와 출판사를 연결하는 시도까지 펼친다면 굉장이 유익한 경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양궁림 만화제 등 유수의 국제만화제들을 벤치마킹하는 등 지난 기간동안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출판만화 축제로 특화를 시켜온 부천만화축제를 10년 후에는 세계 출판만화 저작권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시킬 것입니다. 10년 후에는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출판만화계의 프랑크푸르트 북페어와 같은 위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